

### “중국 선불교의 진수 국내불자에 소개”

선(禪)에 대한 학문적 규명을 시도하여 선불교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불교학계의 대표적 저자인 '선학총서'를 우리말로 옮기고 있는 김진무 씨(40)를 만났다. 그가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번역 출간한 책은 <선과 노장>, <선학과 현학>, <불교와 유학>, <조사선> 5권, 조만간 출간될 <분등선>, <여래선> 등을 포함 선학총서는 모두 10권으로 운주사에서 완간된다.



96년부터 중국 남경대 철학과에서 중국철학을 전공 최근 '불학과 현학의 관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은 석사 학위 논문 '동산법문과 그 선사상연구'를 쓰면서 '중국사상을 공부하지 않고 선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었다. 북경에서 중국어공부를 할 때 우연히 읽게 된 책이 바로 선학총서 시리즈다.

### 책과 삶

중국불서 '선학총서' 옮기는 김진무 씨

### 중국 원전번역회 설립 올바른 번역서 펴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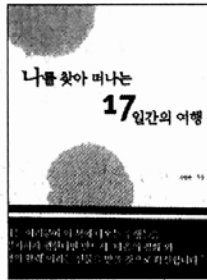
선학총서는 그 책들 가운데 선불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표적 저작이다.

중국출판계에서는 학술서의 경우 3천부 이상이 판매되면 수준 높은 학술서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선학총서 시리즈는 10권 모두 2만부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호응이 높다. 남경대학 현직 교수들이 집필한 이 시리즈는 남경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했다.

선학총서를 읽고 남경대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한 그는 "중국선학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세밀하게 연구하는 중국불교학계의 화풍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기 위해 이 시리즈를 우리나라에 번역하게 됐다"고 번역의 이유를 밝혔다.

6년간의 중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 경기도 일산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그는 요즘도 선학총서 번역에 한창이다. 학문연구와 번역을 함께한 그에게 아쉬움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에 출간된 중국불교관련 번역서들 가운데 번역서를 다시 번역한 책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어려운 부분은 아예 빼놓을 정도"라고 번역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그래서 그가 우리나라에 귀국하자마자 세운 서원이 하나 있다. '중국원전번역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김중근 기자



### “나를 찾아 떠나는 17일간의 여행” 조연현 지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늘 우리 곁을 맴도는 화두들이다. 속도 지상주의로 치달으며 인간 소외를 부추기는 최근의 흐름에서는 특히 그렇다. 최근 종교

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의문을 서로 나누고 해법을 찾아 가는 수행반편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여름 휴가철 복잡한 피서지를 피해 사찰로 단기를 가를 떠나려는 이들이 많은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 마음찾는 구도의 길 안내서

신간 <나를 찾아 떠나는 17일간의 여행> (한겨레신문사)은 불교·기독교 등 여러종교의 17개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 '깨달음의 장' 한 장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박은영입니다.” “박은영이라는 글씨가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몸입니다.” “어렸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과 수십 년 후의 몸이 모두 다른데, 어느 것이 진짜 당신입니까.” “....” “당신은 누구입니까.” “마음입니다.” “어제의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 “박은영 씨.” “....” “박은영 씨.” “....”

이러한 집중적인 문답 속에서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향해 “정말 나는 누구일까”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현재의 이들도, 지위도, 종교도, 학력도 결국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다. 이렇듯 “나를 찾는 여행”은 모든 것을 밖에서만 갈구하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 자기를 성찰하는 마음 여행이다.

이 책에 소개된 수행처는 정토수련원의 '깨달음의 장'에서부터 인천 용화선원의 참선,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불교



<정토수련원 '깨달음의 장' 수련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수행에 앞서 모든 짐을 내놓고 있는 모습.>

### 참선·동사십·영신수련 등 깨달음의 현장 17곳 탐방

수행법인 동사십, 천주교의 영수련, 티베트의 명상 수행, 노동과 영성이 어우러진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삶에 이르기까지 수행현장 17곳에서의 체험을 담고 있다.

이러한 마음 여행 방법은 종교나 종파 그리고 수행의 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다가가는 곳이 있는 가하면, 한바탕 춤판이나 죽을 목상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기도 한다. '나'를 내세우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인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유지되기도 한다. 이

러한 수행법의 공통적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한겨레신문사 문화부 조연현 기자. 그는 수행에 참가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바로 옆에서 전한다. 지은이가 취재자로서 수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다.

지은이는 17일간의 마음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말한다. 수행은 본래의 나로 건너기 위한 나뭇배이다. 나뭇배 자체에 집착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문제는 수행법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남의 수행법을 시비하기에 앞서 바로 자신을 시비할 것이다. 독자들이 밖에 대한 시비를 떠나 비로소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이 책도 집이 될 필요없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a.com

### 감성과 역사가 만난 실�크로드

### ‘돈황 가는 길’ 정찬주 지음



진리를 찾아 막막한 죽음의 실�크로드를 건넌 수많은 구도승들의 정신을 아직도 느낄 수 있는 곳. 천년에 걸쳐 조성된 석굴들의 대화랑, 그 속에서 만나는 동서문화 교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는 <돈황 가는 길> (김영새이 나왔다. 지은이는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등 기행문과 소설을 발표하고 있는 작가 정찬주 씨.

책은 돈황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여러 역사의 현장들을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일상에 대한 사색을 통해 명상적인 견문록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현종과 양귀비의 화청궁에서는 그들의 사랑을 인간적인 잣대로 바라보며 무안색(無顔色)이라는 고사를, 진시황릉에 올라 분서갱유(焚書坑儒)와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은 고사성어를 그려낸다. 이처럼 돈황 가는 여정은 단지 이국적 풍경의 낯설음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뿌리내린 감성의 열매를 통해 이야기 한다.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돈황 마고굴 220굴의 조우관을 고구려식이라고 추정하는 것과 새로 발견한 237굴의 관모는 통일신라식이 아닐까 하고 추론을 내리는 부분이다. 값 9천9백원. 김중근 기자

### 일심·화회·무애로 본 원효

### ‘원효탐색’ 고영섭 지음



원효 스님의 사상의 길은 일심-화회-무애로 표현된다.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중생들을 풍요롭고 이의 되게 하고자 했던 원효는 그의 학문적 화두를 세 기호가 하나로 아우러진 지평에서 풀어가고 있다.

신간 <원효탐색> (연기사는 원효 스님의 역정을 일심화-화회론-무애행의 축으로 탐색한다. 지은이는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씨. 책은 먼저 '원효의 화회론'은 구일심원요(欲生界)이라는 그의 화두를 실현시키는 매개체인 화회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원효의 일심화'에서는 원효 스님의 사상적 코드인 일심의 지행도가 어떠한 구도 위에서 그려졌는지를 공부론, 상애론, 정토론, 화엄학의 축을 통해 밝히고 있다. 또한 '원효의 무애행'에서는 그의 사상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핀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을 들어라”

### ‘듣기의 달인이 되는 법칙’

### 이규조 옮김

사람들은 누구나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자신이 말하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지만, 상대의 말을 듣는 시간은 길게 느껴진다. 예로부터 자기 말이 많은 사람은 손이 허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속이 차 있다고 있다. 그렇다면 듣기란 무엇인가.

신간 <듣기의 달인이 되는 법칙> (가야마 히로히사 지음, 이규조 옮김, 모썸은 말하기의 기술과 전략을 뒤집으면 모두 듣기의 기술과



전략이 된다고 강조한다. 다만, 듣기의 달인이 되려면 자기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철학이 몸에 배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듣기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수양을 먼저 강조한다.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상대의 말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훈련과 말하고 싶은 욕구를 다스리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 최인호 창작집 ‘달콤한 인생’



최인호 씨가 창작집 <달콤한 인생> (문학동네)을 냈다. 지난 82년 출간된 <위대한 유산> 이후 20년 만의 창작집으로 '달콤한 인생', '이별 없는 이별', '산문', '몽유도원도'를 비롯해 82년 발표된 '길고 푸른 밤' 등 6편이 실려 있다.

이번 창작집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지은이의 의지가 종교와의 결합을 통해 종교적 구도의 길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 ◇금주의 베스트셀서 10

### 재방 역시이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깨달음의 길         | 진우기 신민옥 | 부다스텔   |
| 2  | 영가환도           | 우 통     | 효 립    |
| 3  | 선방일기           | 지 허     | 여시아문   |
| 4  | 티벳 밀교 요가       | 유기 천    | 정신세계사  |
| 5  | 선의 나침반         | 현 각     | 열 립 원  |
| 6  | 나의 행자시절        | 박 원 자   | 다함미디어  |
| 7  | 선재스님의 생활음식     | 선 재     | 다자인하우스 |
| 8  | 명상으로 얻은 깨달음    | 달라이 라마  | 가 립    |
| 9  | 생활속의 기도법       | 일 타     | 효 립    |
| 10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 성우 지현   | 민 족 사  |

도서 안내: (02)737-0695

# 담무갈

작가 남지심이 14년의 침묵 속에서 빚어낸 《우담바라》의 완결편!

《담무갈》의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위해 목숨 바치는 과정임을.....

고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눈을 뜨면 하나도 새로운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그렇게 전투를 하듯 바둥거리며 또 하루를 힘겹게 마감하고.....

묵직한 소포꾸러미가 제게 배달된 것은 그러던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직접 전해줘도 될 것을, 굳이 우편으로 보낸 당신의 마음을 내내 헤아리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담무갈> 속에 살아 있는 사람들... 참으로 행복한 이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오롯이 바칠 만큼 소중한 대상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뜻뜻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만이 진창 같은 현실 속에서 나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맑고 평안해집니다. 다시 세상을 마주보고 밝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당신, 두고 두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전4권 | 각권 값 8,000원

전3회에 걸쳐 독자들의 글을 받게 될 이번 행사의 첫 번째 테마는 '내 마음속의 길동네'입니다.

소설 <담무갈>에서 대중사의 성분을 위해 자신의 한 생을 윤곽에 바친 길동네처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마음,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응모 방법: 2백 자 원고지 10~20매 분량의 원고를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중정로 3가 270번지 푸른소울 문학팀), 또는 담당자 이메일(jpnim@prunsoop.co.kr)로 투고해주시고.

원고 마감: 2001년 8월 20일

행사 문의: 02-362-4468

시상 내역: 대 상 1명 (상금 50만 원)

우수상 1명 (상금 20만 원)

가 작 3명 (상금 10만 원)

입 선 50명 (3만 원 상당의 봉사 출간 도서 증정)

